

광주 10명 중 3명 “노후준비 안한다” 전남 청년 10명 중 6명 “이주 계획”

2017 광주·전남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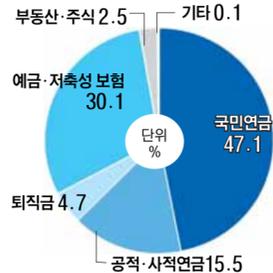
광주시민 10명 중 3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브랜드시책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추진하고 있으나, 30세 미만 청년 10명 중 6명은 현재 사는 곳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실태와 인식변화, 삶의 질 등 사회적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7 광주·전남 사회조사’ 결과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표본가구로 4917가구를, 전남도는 1만9152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민은 노후준비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으며 29%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물로는 47.1%가 국민연금, 30.1%는 예금과 보험, 15.5%는 공적 및 사적연금, 4.7%는 퇴직금을 들었다. 특히 60세 이상 응답자 중 4명 중 3명꼴(74.6%)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았다. 60세 이상 시민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53.8%)였고, 그 다음이 ‘경제적인 어려움’(30%)이었다. 또 이들 60세 이상 시민은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66.4%)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노후준비와 홀로 살아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 요구도 많았다.

■광주시민 노후준비 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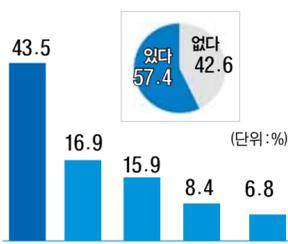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노인돌봄서비스’(21%)를 꼽은 시민이 ‘맛집이거꾸로 양육지원’(25.2%) 다음으로 많았다.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물음에도 ‘사회복지시설’(21%)이라고 답한 시민이 ‘공영주차시설’(25.2%) 다음으로 많았다.

2년 전과 비교한 생활여건에서는 59.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로는 보통이 43.7%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35.4%와 20.9%였다.

전남도민 조사에서는 10명 중 2명이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30세 미만 젊은층은 57.4%, 30~39세는 45.8%가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떠나려는 이유는 교육환경(24.9%)과 직장 및 일자리(23.7%) 때문이었다. 이들 가운데

■15~19세 전남도민 이주 의향·이유



63.2%는 광주(29.1%)를 비롯해 다른 시도(서울 10.4%, 경기 6.3%, 기타 17.4%)로 떠나고 싶다고 희망했다. 나머지 36.8%는 전남지역 내 도시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민의 가구 소득은 1년 새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 비율이 27.8%로, 전년 43.7%보다 무려 15.9%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이래 고소득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업 등 전남 주력산업의 불황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살에 대한 만족도는 6.6점으로 전년(6.8점)보다 0.2점 낮아져 정주여건 개선 등 대책이 요구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겨울이 즐거워” 겨울 한파가 한풀 꺾인 14일, 광주 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튜브썰매를 타고 눈밭을 내려오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靑, 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 수사권 강화

공수처 신설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경찰에 안보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넘겨받아

청와대는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 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 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 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결과 정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결과 정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서 왔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네 책방 도시 아이코닉이 되다
1961년 영국 ‘헤이 온 와이’ ▶18면

국민의당 내달 4일 전당대회

합당여부 결정... 진통 클 듯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하는 임시 전당대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한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당무위

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개최일자,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안 등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이날 전체 위원 75명 가운데 39명의 찬성(5명 서면 찬성)으로 다음달 4일 임시 전당을 개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무위는 이날 양당 합당을 ‘보수야합’으로 규정한 통합반대파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지난해 10월 양당 합당 논의가 시작된 이후 3개월여 만에 양당 합당의 마지막 관문인 전당 개최안을 확정지었다.

전대 안건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의 건’, ‘수입기구 설치의 건’이 상정됐다. 수입기구 설치의 건은 양당 통합추진기구를 당무위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당무위는 전대준비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은 총 12명이며, 위원장에는 김중로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태규·김삼화 의원이 임명됐다. 전준위는 앞으로 전대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등 전대 준비 관련 전담을 관장하는데, 위원 대다수가 친(親)안철수계 인사여서 전대 물 확정 등에 있어서 안 대표의 입지가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준위는 이번 전대를 서울 한 곳이 아닌 전국 권역별로 동시에 열어 온라인투표 없이 100% 현장 투표로 치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1만명으로 추정되는 대표단원이 투표를 통해 양당의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당대회 방식 등 전대 세칙 결정을 두고 통합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도 ‘천년나무’에 해남 대흥사 느티나무

전라도 천년을 기념해 전남을 대표할 ‘천년나무’에 해남 대흥사 느티나무 <사진>가 선정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 느티나무, 강진 푸조나무, 진도 비자나무 등 3그룹을 대상으로 전남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설문 조사한 결과, 해남 느티나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산림 전문가 현장평가, 도청 직원 설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민들은 SNS에서 “해남 느티나무는 천년동안 이어온 강한 생명력으로 남도의 애환과 역사를 간직했으며, 굵고 바른 줄기는 미래 전남의 힘찬 발전을 상징하고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선택 이유를 전했다.

전남도는 숲길 정비와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오는 3월에는 천년나무 지정 현판식도 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 228-1199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설연휴, 겨울방학, 봄방학을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슈퍼그레이트한 무안출발 해외여행

<p>하나Pack 클래식 JOPF01_KEA [369프로모션] 특급호텔+아리마 온천 오사카/교토/나라/고베 3일, 4일</p> <p>총 상품가격 1,390,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 선택경비 있음</p> <p>2/15(목), 18(일), 22(목), 25(일) 대한 항공 무안 → 오사카(2/3) → 무안 특식 3회(가마메시 정식, 스시 정식, 사바사브)</p>	<p>하나Pack 캐주얼 APPF10_BY1 [한정특가] 일급리조트+세일링보트 보라카이 4일, 5일</p> <p>총 상품가격 64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p> <p>2/1(목)~2/25(일) 매주 목, 일 출발 팬퍼시픽 항공 무안 → 보라카이(3/4) → 무안 특식 1회(아도보 특식)</p>	<p>하나Pack 캐주얼 APPF01_BY5 화이트샌드리조트+발마사지 세부 4일, 5일</p> <p>총 상품가격 687,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p> <p>1/13(토)~2/28(수) 매주 수, 토 출발 팬퍼시픽 항공 무안 → 세부(3/4) → 무안 특식 2회(사바사브, 아도보 백립)</p>
--	--	--

■여행상품 가격포함(국외)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료,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사] 여행사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액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사항: 여행사 여행 상품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관광사설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2층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세일링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한민화인)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